

야 된다는 점이다. 할 수만 있다면 어선과 어민들에게 상당 부분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항만과 어항의 개념이 뚜렷이 정립되기 전에는 어민들은 대천항을 자신들의 전속 이용어항으로 알고 있었다.

단지 편의상 일반 화물이 함께 이용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이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관할이 생기고 관리의 주체가 생기면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것은 수산청이 아닌 해양항만청이 대천항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논리에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게다가 다른 수협은 어항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천수협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더욱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편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선을 위주로 모든 항이 운영되었는데 이제는 어선과 화물선이 뒤엉켜 뒤죽박죽인 것이 도무지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민의 입장에서는 관리나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되어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민이 항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을 강조한다.

수협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대천항이 날이 갈수록 어항의 역할이 약해짐에 따라 이로 인하여 관내 수산업이 취약해지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좀더 어항에 역점이 두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우선 계획기간내에 대천항을 완공시키는 것과, 기왕에 항 개발을 할 바엔 대천항의 장래성을 고려해 어항구역까지 염두에 둔 그런 항으로 만드는 해안을 요청하고 싶다.

어쩌면 단순한 듯 싶지만 어항과 일반항은 기능상 엄연히 구별돼야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용자 의견

어민실정에 맞는 관리로 늘 손해 어항구역만이라도 설정

高永佛 <나로도수협 조합장>

나로도항(축정항)은 해운항만청 소관 항만으로 연안항이다. 나로도항의 규모는 물양장 512m, 방파제 250m, 하역능력 10만 3,000톤으로 다른 연안항에 비해서

는 다소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러나 나로도항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생계수단이 대체로 수산업임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나로도항의 특성 역시 어선의 이용에 보다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항으로서의 역할을 아울러 하려고 하니 하루가 다르게 어항으로서의 기능은 쇠퇴해가고 일반항으로 점점 변색돼 가는 느

김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이 같이 점점 취약해져 가는 지방이나 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개발에 착수·시행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특히 도서지역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치관과 욕구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한 관광 휴양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자원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주변해역을 포함한 해양자원개발장소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의 개발 전망도 매우 밝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립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타당성을 갖게 되나 정작 어민들의 관심사는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될 항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어항으로 개발된다면 별탈이 없겠지만 항만으로 개발된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현재 우리 나라의 추세가 1차산업을 대체로 사양산업으로 보는 관계로 3면이 바다이다. 세계에서 보기도문

해안선을 갖고 있다. 21세기의 가장 확실한 자원은 수산자원 뿐이다 라는 주장이 점차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어민들에게 적잖은 우려를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한다면 일종의 노파심이었지만 이렇다간 자칫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우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선 나로도항이 안고 있는 항만으로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안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선 전용 접안시설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화물선, 여객선 등 일반선이 함께 어우러져 접안을 하다 보니 정작 어민들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한결같은 불만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수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다. 일반선과 어선이 서로 교대를 해가며 접안시설을 이용하면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나로도항이 다른 항처럼 크게 붐비는 항도 아니요, 조용할 때는 한없이 한적한 항이기에 이런 견해를 갖는 사람이 종종 있는 듯싶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산업은 여러가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시다확성이라는 점과 부패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성어기가 되면 한꺼번에 어선이 가득 몰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출어기나 어항기가 되면 어선을 눈씻고 찾아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성어기를 맞아 어선이 가득 몰려오는 때에 발생한다. 수산물은 선도가 곧 가격이다. 다시말해 먼저 접안하여 양륙하는 수산물이 가장 좋은 가격을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접안을 하지 못해 뒤쳐져 있는 어선의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수산물 가격이 하락한다.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산물을 제값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반값밖에 못받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눈에 불이 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민들이 어항을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설사 전용 어항이 어렵다면 어항구역만이라도 별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달라라는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어민들도 잘 알고 있다. 내심 수산청에

서 하다못해 어항구역만이라도 별도 설정해 어선의 이용 실태에 맞게 관리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수산청이 나로도항이나 아니면 어항구역만이라도 설정해 운영한다면 화물선이나 여객선같은 다른 일반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선의 접안과 양륙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에서다.

이같은 바람은 어쩌면 소박하면서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어선 사이에서 하나씩, 둘씩 모습을 보이던 일반선이, 이제는 거꾸로 일반선에서 어선을 하나씩, 둘씩 찾게 되었으니 그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해운항만청에서 계속 관리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 이유는 항

만청의 예산 규모가 크고, 관리 상태가 좋으며, 어선접안과 양륙의 불편함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은 수산청이 한번 곱씹어 보고 넘어갈 대목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어항예산의 열악함이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 어항행정에 대한 어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수산청이 관리를 했다면 이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란 어민들의 판단이 불편하긴 해도 해운항만청에서 계속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어항협회가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으니 바로 이런 미묘한 부분을 어

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 묘방을 제시해 어항행정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는 데도 앞장서야 할 것 같다.

이밖에 나로도항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준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박의 입출항이 많아진 관계로 준설에 어려움은 많지만 자칫 이런 상태로 방치되다가는 선박사고를 자초할 지도 몰라 크게 우려된다.

어민생계와 직결된 어항시설은 중점 개발계획을 세워 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고 수산청이나 해운항만청에 건의하고 있지만 제한된 정부 예산상 이게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행정의 개편을 통해 어민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시켰으면 하는 것이 어민의 솔직한 바람이다.

이용자 의견

항만청 시설 보강 큰 불편 없어 수산예산 충분할지 걱정

韓 亨 久 <강구수협 조합장>

어항시설은 어민들의 생역할 뿐 아니라 어촌지역 사회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 구심점으로서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많은 항·포구 시설이 아직도